



박상태 (2007) 《인구사상과 인구정책》 서강대학교 출판부, 392쪽.

## 동서양의 인구사상과 인구정책 비교

이 홍 탁\*

### I. 들어가는 말

어느 분야의 학문에 종사하건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은퇴를 전후하여 자신이 평생에 걸쳐 불철주야 연구하여온 전공분야의 논문들을 한편의 저서로 남겨두어 후학들이 이 분야를 연구하는데 조금의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학문에 열중하는 사람들에게 “은퇴”란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질타를 하기도 하지만, 여하간 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은퇴라는 통과시험은 거칠 수밖에 없을 것만 같다.

여기에 대학에서 지난 수십 년을 인구학분야에 몸담아온 저자가 은퇴에 즈음하여 그간에 그가 저술한 논문들을 엮어 한편의 귀중한 책으로 펴내어 인구학을 전공하는 학도들에게 풍요로운 “마음의 양식(pabulum)”을 선물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저자가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동·서양의 인구사상, 둘째는 북한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자료의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의 묘미는 이제까지 거의 미개척 상태에 있었던 조선조 실학파의 인구사상과 중국 淸朝 중기에 생존하였던 洪亮吉(1746-1804)의 인구사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구자료 분석이나 인구정책보다는 주로 저자의 주된 관심사인 조선조와 청대의 인구사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

\* 한국의국어대학교 사회학 명예교수

## II. 조선조 실학자의 인구사상

저자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학자는 磻溪 柳馨遠(1622-1673), 星湖 李瀾(1680-1763), 茶山 丁若鏞(1762-1836), 芝峰 李碎光(1563-1628), 淸潭 李重煥(1690-1752), 燕巖 朴趾源(1737-1805), 楚亨 朴濟家(1750-?), 惠崗 崔漢綺(1803-1877)의 8명이다.

이들 실학자들이 다룬 인구에 관련된 내용은 인구의 증감을 다루는 호구조사, 田制, 입신, 출산, 불입, 태아사망, 초혼연령과 같은 결혼 및 이혼행태에 관한 자료, 近親婚, 出妻, 改嫁 및 간음과 같이 다양하다. 물론 지금처럼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구체적인 근거에 의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들의 주장은 당시 조선사회가 당면하고 있던 사회상을 부분적으로나마 밝혀준다.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들면, 磻溪는 그의 磻溪隨錄에서 나라를 위하는 근본은 백성의 수를 파악함에 있으니 백성의 수를 파악하지 못하면 비록 나라를 일으키고 다스리고자 하되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 하였고, 인구가 증가된 주, 현의 장은 포상을 하되, 반대로 인구가 감소한 주, 현의 장은 뺄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磻溪는 말하기를 토지와 호구의 늘고 준 것을 토대로 관리들이 백성을 사랑하며 농사에 힘썼는지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茶山도 經世遺表에서 호구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에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만약 成丁人口를 은폐하고 호적에서 누락시키거나 年狀을 증감해서 늙은이나 어린아이로 등재하여 差役을 면한 것이 1-3명이면 그 가장을 仗 60에 처하고...

燕巖은 그의 燕巖集에서 당시 조선사회 인구현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군내 호구 전체가 농가이고 농부 1인이 부모를 모시고 또 처자를 거느리고 있다고 보아... 1가구를 5명의 식구를 단위로 설명해보면 5명의 식구가 되는 가호 수는 불과 2,702호 밖에 되지 않는다. 대체로 1가호가 5명도 안 되는 식구로는 거름도 내기 어렵고 역능을 할 수가 없다. 1가호가 최소한 5명의 식구는 되어야 비로소 농사를 지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楚亭은 北學義에서 인간의 장수를 논하면서 인간의 명을 하늘의 뜻에 맡기기 보다는 인간이 식량을 증산하여 적극적으로 수명연장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의 결혼양상에 대해서 礪溪는 여자가 나이 많은데도 시집가지 않는 자는 죄를 주어 남자가 홀로 지냄이 없게 하여야함을 지적하고 있고, 芝峰은 성비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축첩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芝峰類說에 담긴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딸라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 까닭으로 한 남자가 수십 명의 아내를 가진 경우도 있다.. 제주 촌 동네 여자들은 배필이 있는 사람이 드물다. 매년 3월, 군사들이 들어오면 여자들은 곱게 단장하고 술을 들고 別刀浦로 마중 나와 술대접을 하고 그의 집으로 맞아들인다.

이상적인 초혼연령에 관해서 茶山은 여자는 20세, 남자는 25세 이상이 적절 한 것이라 하였고,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도 자녀들의 성혼을 미루는 자는 처벌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수절에 대해서 星湖는 수절은 “찬미”할 일이지 만 모든 경우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학자들의 입장은 출산장려, 또는 다산장려였음은 蕙崗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잘 반영된다:

아들, 딸을 많이 낳아 잘 기르는 사람은 항상 인자하고 온화한 부부 중에 많고...

저자는 불임과 인공유산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p. 80):

8) 불임은 七去之聖에 속한다하여 사회적으로 강력히 제재하였으나 불임의 관습과 실행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려웠다. 특히 자발적인 불임이나 피임은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여기서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발적인 불임”의 뜻은 명확하지 않다. 혹시 불임(in-fecundity, sub-feundity)과 피임(contraception)을 혼용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9) 당시 인위적 유산(인공유산(induced abortion))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실행의 빈도를 알 수 없으나..

위의 두 가지 요약은 실제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 실학자들, 특히 당시 유교사회의 상부층을 주도하고 있던 젊음은 유학자들이 하류계층의 시골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나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자연 불임(sub-fecundity 또는 infecundity)이나 인위적인 피임(contraception)에 관한 내용을 그들의 책에서 언급하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을 터인데, 당시 조선사회에서 정녕 “인위적인 피임”이 없었을까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증류층이나 하류층에서 주고받았던 언문서간의 내용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분명 “인위적인 피임”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삼국유사를 도외시한 채 삼국사기만을 토대로 역사를 논할 수는 없지 않을까? 만약 프랑스 혁명사를 Edmund Burke가 쓰지 않고 Bastille 감옥을 무너뜨리는데 직접 참여하였던 Bras Nus나 Sans-Culottes에 의해 집필되었더라면 어떠하였을까? 만약 동의보감이나 기타 당시의 의학서적들을 뒤적여 본다면 자연불임(그것이 in-fertility이건 sub-fertility이건 상관없이)에 대한 보다 유용한 자료를 찾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인공유산이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리라는 주장 역시 젊음은 유학자들의 저서만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조선조에도 자연유산(spontaneous abortion)이 아닌 인공유산은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공유산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즐기치게 논의 되어왔다. 단지 실학자들이 그들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였을 것이다. 안방 아낙네들의 그 많은 잡다한 수다를 어찌 그들의 저서에 모두 수록할 수 있었으리오.

### Ⅲ. 청나라 洪亮吉과 Malthus의 비교와 과제

조선조 실학자들의 사상은 이 정도로 끝맺고 청나라 洪亮吉(1746-1804)의 인구사상을 살펴보자. 그의 인구사상이 담긴 “意言”이 1793년에 발간되었으니 Thomas Robert Malthus(1766-1834)의 “인구론” 초판이 발간된 1798년보다 5년이 앞서는 셈이다. 먼저 洪亮吉의 저서에 담긴 내용을 저자가 소개한 대로 요약해 본다.

그는 인구증가에 대해 논하기를, 호구는 30년에 5배가 되고 60년에 10배가 된다. 100년이 지나면 20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 증가한다. 그러면 토지의 경우는 어떨까? 한 집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 증조부 때 땅 1경에 방 10칸이었다고 하자. 증조부와 증조모 두 사람에게 방 1경 방 10칸은 풍족한 것이었다. 그러나 증조부 내외가 아들 3, 딸 3을 낳아, 딸은 시집보내고 아들은 결혼시켜 아내들을 맞으면 모두 8인이 된다. 이들이 다시 손자를 낳아 손부들을 맞아들이면 모두 20-30인이 되고, 3-4대를 거치는 동안 처음 한호가 10여 호 이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석락하는 가족도 있긴 하겠으나 번창 하는 가족의 경우 4-5대가 지나면 더러는 3-5배, 많은 경우는 20배가 된다. 이로서 전지의 가옥은 늘 부족하게 되고, 인구는 남게된다.

洪亮吉의 인구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은 天地調劑法과 君相調劑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天地調劑法이란 수해, 한발, 또는 역질이 인구증가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洪亮吉의 주장에 따르면 天地調劑法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백성들의 수는 열 명 중 한, 두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그만큼 그 영향력이 미미함을 뜻한다. 그 다음 君相調劑法이란 들에 휴경지가 없게 하고 새로운 개간지를 확보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소비절약을 독려하여 (인구증가로 야기되는) 호구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경감시키려는 시도를 말한다.

그런데, 저자는 洪亮吉과 Malthus의 이론을 비교하면서, 전자의 天地調劑法과 君相調劑法을 후자의 적극적 규제책(positive check)과 예방적 규제책(preventive check)에 각각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핵심 논리는 인구증가 억제책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인구증가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다루는 인구증가 장려책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洪亮吉의 인구사상을 Malthus의 그것과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물론 Malthus 자신도 인구증가를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에서 관찰하기 보다는 “급성장 인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어디까지나 Malthus는 인구증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시종일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Malthus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과거 대부분의 중국 사상가들의 견해가 그러하였듯이, 洪亮吉 역시 인구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인구증가란 생물학적, 사회적인 현상을 정면 대립되는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는 두 사상가들의 이론에서 유사한 점을 도출해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간, 저자가 이 책에서 갈파하고 있는 조선조 실학자들과 창조 洪亮吉의

인구사상에 관한 이론은 앞으로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 저서가 중국의 인구사상을 연구하려는 후학들에게 후일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